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 : 탄력적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현 경 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

이 연구는 서울지역 저소득층 부부 183쌍($n=366$)을 대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marital outcome) 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러한 결혼과정의 부적요소를 완화시키는데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대로, 부부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고통 및 부부갈등 인식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그러한 정서적 고통은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부부갈등 인식에 기여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인식 간의 관계는 정서적 고통에 의한 매개경로와 직접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로 부부가 인식하는 가정생활, 사랑/애정, 가치관/인생관 영역의 갈등은 예측대로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 갈등반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그러한 갈등반응이 결혼결과에 미치는 예측된 효과는 남편집단에서만 나타났다. 즉 남편들의 부정적 갈등반응은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을 저하시켰고, 그러한 경로를 통해 부부들이 느끼는 결혼불안정이 강화되었다. 경제적 스트레스 극복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특성과 관련하여, 독립적 자기해석의 예측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예측대로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력을 조절하여 아내의 정서적 고통과 남편의 부부갈등 인식을 낮추었다.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강조되어 온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저소득층 부부들의 결혼생활을 돕는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자기해석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경제적 압박, 경제적 스트레스, 정서적 고통, 부부갈등, 갈등인식, 갈등반응, 결혼만족, 결혼안정, 결혼불안정, 독립적 자기해석,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중에는 하나는 기본적인 경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그러한 스트레스는 기혼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여 종종 부부갈등과 폭력적인 갈등 반응을 낳는다(조혜자, 방희정, 1998; Albreht, Bahr, & Goodman, 1983). 따라서 경제적 압박에 의한 부부 간의 충돌은 기혼자 개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03-B00426). 본 연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 : 현경자, (121-1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6 SK 허브그린 1911 우리사회복지연구소, 전화 : (02) 702-7884, Email : swwhyun22@hanmail.net

인의 안녕감과 결혼의 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혼고려, 가출 등으로 결혼의 안정을 위협하여 가족구성원 모두의 삶에 역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은 기혼남녀의 우울, 불안, 대처능력 저하, 음주 및 건강문제, 적대적인 자녀양육 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윤태호, 2003; 조혜자, 방희정, 1998; Kessler, Turner, & House, 1988; Kinnunen & Feldt, 2004; Larson, 1984; Liem & Liem, 1988; Pearlin, Menaghan, Lieberman, & Mullan, 1981; Sallinen & Kinnunen, 2001;), 경제적 압박과 부부불화로 손상된 부모의 자녀양육은 자녀의 공격성, 우울, 비행문제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onger, Wallace, Sun, Simon, McLoyd, & Brady, 2002; Yoder & Hoyt, 2005). 경제적 스트레스는 상대적이므로 모든 사회계층의 부부들이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한 스트레스의 부적효과는 심리사회적 자원이 취약한 저소득층 부부들 사이에서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압박을 경험하는 저소득층 부부들의 결혼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기초연구와 이들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들의 안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이론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부부문제 예방을 위한 함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필요하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개인이나 결혼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 동안 경험연구를 통해 꾸준히 밝혀져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의 안녕감 또는 결혼만족이나 결혼안정 간의 부적 상관을 살피는데 그쳐 그러한 부적관계가 형성되는 결혼과정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Conger, Rueter, & Elder, 1999). 예를 들면, 경제적 압박이 어떠한 심리 기제와 경로를 통해 부부 갈등과 결혼결과(marital outcome)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게다가 경제적 스트레스가 결혼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핀 소수의 연구도 연구방법에서 크게 두 가지 보완점이 발견된다. 첫째, Conger와 동료 연구자들(Conger & Elder, 1994; Conger, Elder, Lorenz, Conger, Simons, Whitbeck, Huck, & Melby, 1990; Conger et al., 1999)이 발전시켜 온 가족 스트레스 모형 부류의 연구는 경제적 압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부갈등 영역을 규명하지 않고, 갈등의 전제 하에 부부가 갈등을 느낄 때 보이는 부정적인 심리행동 반응을 결혼갈등(marital conflict)으로

조작화 하였다(예 : Conger et al., 1999; Kwon, Rueter, Lee, Koh, & Ok, 2003).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로 부부가 경험하는 결혼생활의 갈등 영역은 어떤 특성을 보이며, 그러한 영역의 갈등인식은 기존연구들이 전제한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이 부류의 연구는 경제적 압박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결과 간의 관계를 밝힘에 있어 결혼만족과 같은 결혼의 질이나(예 : Kwon et al., 2003; Vinokur, Price, & Caplan, 1996) 결혼곤란(marital distress)과 같은 결혼의 안정성(예 : Conger et al., 1999) 한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1) 경제적 스트레스가 결혼의 질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탄력적인(resilient) 부부들의 경우를 고려하여, 기혼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부부관계 특성이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 심리행동과 부부갈등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이 되는지를 밝힌 연구도 드물다. 이와 관련해서는 Conger 등(1999)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 간의 사회적 지지와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각각 정서적 고통과 결혼갈등을 조절함을 보여준 것이 있을 뿐이다. 기혼자의 개인특성 중 그 동안 역할 규명이 미흡했던 자기해석(self-construal) 또는 자기관(self-view)은 한국인의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현경자, 2004, 2007), 기존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성격(personality)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노출과 반응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스트레스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드러나(Bolger & Zuckerman, 1995) 성격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자기해석이 그러한 조절기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이제까지 기혼자의 자기특성과 결혼결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구 이론이나 연구는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녀에게 각각 강조되어온 독립성과 관계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예 : Thompson & Walker, 1989), 유교문화권에서 발달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역할과 남녀 모두에게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다양한 형

1) 결혼의 질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있지만 표본 수가 작고(n=76) 미국 중서부의 농촌지역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여 한계가 크다(예 : Conger et al., 1990).

태로 통합되어 공존함을 간과해왔다(현경자, 2004; Hyun, 1995).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과 결혼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기혼자의 탄력적인 대응을 돕는 보호요인이 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상호의존적 자기해석과 같이 한국인에게 발달하는 자기성향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스트레스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특성 영역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서구의 이론 및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으나 한국인의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혼자의 자기특성을 밝혀 부부들의 탄력성 도모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보다 빈번히 그리고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 부부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압박이 어떻게 이들의 갈등인식과 갈등반응에 영향을 미쳐 결혼결과를 저해하며, 그러한 결혼과정의 부적요소를 완화시키는데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기여하는지를 조사하였다.²⁾ 본 연구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부갈등의 내용과 그에 따른 갈등반응 효과를 살펴보고, 결혼결과의 양 측면, 즉 결혼의 질과 안정성 모두를 분석에 고려하여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의 갈등인식과 갈등반응 및 결혼결과 간의 관계를 선행연구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혼자의 자기해석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점을 규명하여 자기해석과 같은 개인특성이 결혼생활에서 심리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구조모형, 즉 (1)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2)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갈등이 결혼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결과 간의 단일화된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그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1 :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은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목표, 욕구, 또

2) 이 논문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용어는 Conger 등(1999)의 연구와 일관되게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나 재정적인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기 위해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하였다.

는 기대의 차이로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대립이나 충돌로 정의할 수 있다.³⁾ 경제적 스트레스는 그러한 부부갈등의 중요한 원천이 되며 결혼의 과정과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Conger et al., 1999; Vinokur et al., 1996). 부부갈등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발생된 맥락, 즉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발생한 갈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Fincham & Beach, 1999), 기존 연구에서는 그러한 측면이 간과되어 왔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압박과 같은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에 초점을 맞출 경우 그로 인한 갈등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부정적 갈등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거나(예 : Conger et al., 1999; Kwon et al., 2003), 갈등내용에 초점을 맞출 경우 그러한 갈등을 낳은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고려가 생략되어 있다(예 : 김경신, 이선미, 2001; 이선미, 전귀연, 2001; Kurdek, 1994b). 이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의 외부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부부갈등을 촉진하며, 그로 인한 갈등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서적 고통의 매개효과와 경제적 스트레스의 직접효과

Conger와 동료 연구자들(Conger & Elder, 1994; Conger et al., 1999)이 발전시켜 온 가족 스트레스 모형에 의하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배우자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에 의해 증대된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부부갈등을 촉진시킨다기보다 부부 각자가 실직이나 소득감소로 경제적 압박을 높게 느끼기에 따라 정서적 고통이 증가하여 부부 간의 갈등이 유발된다. 이는 Berkowitz(1989)가 재구성한 좌절-공격 이론에 따른 것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상황은 의기소침부터 분노에 이르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나 감정적 각성을 증가시켜 사람이나 동

3) 이러한 정의는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Conger 등(1999)의 경우처럼 연구자에 따라 부부갈등의 정의에 갈등으로 유발되는 행동심리적 결과를 포함하여, “부부 사이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민식, 오경자, 2000, p.727)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부부가 인식하는 갈등상태와 갈등반응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갈등의 정의에서 행동심리적 결과를 배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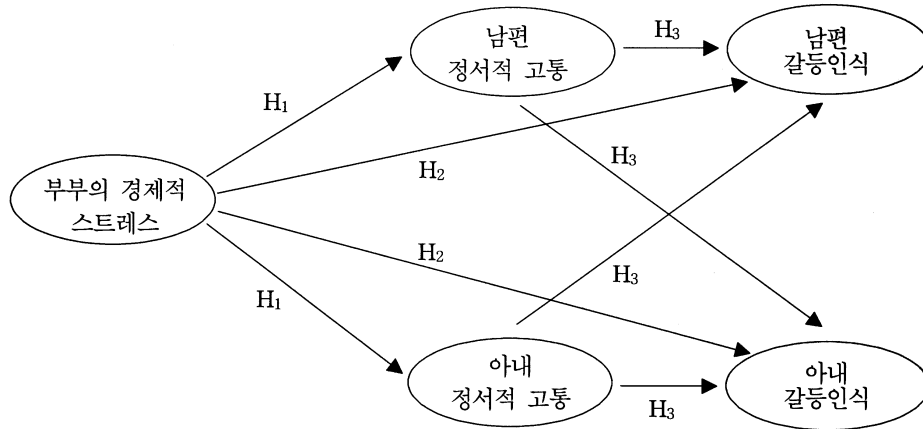


그림 1. 경제적 스트레스, 정서적 고통, 부부갈등 인식 간의 구조모형

물의 공격성을 자극함을 고려한 것이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간의 정적관계가 각 배우자의 정서적 고통에 의해 매개되리라는 가설은 Conger와 그 동료들의 연구(1999, 2002)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산층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부 지지되어(Kwon et al., 2003),⁴⁾ 우리나라 저소득층 부부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IMF) 이후의 국내 신문기사들을 보면, 저소득층 여성들이 남편의 취약한 경제능력으로 갈등을 느끼며,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배우자와 가족들의 즉각적 반응은 대부분 지지적이지만, 경제적 압박이 커지거나 장기화되면 우울, 불안, 좌절감과 같은 심리적 고통이 커져 부부 간의 충돌이 빈번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조혜자, 방희정, 1998).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저소득층 부부들의 갈등인식도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에 의해 매개되리라는 가정이 가능하며, 이는 Conger 등(1999)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과 상통한다.

이와 더불어 갈등인식과 갈등반응을 구별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인식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부들이 의사결정이나 가정운영 방식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소통하는 기회를 축소하므로,

4) Kw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압박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가 아내집단에서만 정서적 고통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사용한 정서적 고통의 측정 도구가 Conger 등(1999)이 이용한 도구와 상이하여 의미 추론 및 결과 비교에 한계가 있다.

부부가 서로 간의 견해차나 대응방식의 불일치를 발견하고 인식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리라 가정하였다. 또한 경제적 곤란이 좌절감, 우울, 적대감을 일으켜 부부 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Vinokur et al., 1996), 부부와 같은 이자관계에서는 한 쪽의 반응에 따라 다른 쪽이 대응하게 되는 상호성을 고려하여(박영화, 고재홍, 2005), 남편과 아내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이 상대 배우자의 갈등인식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 정서적 고통, 부부갈등 인식 간의 구조모형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고통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 둘째, 가설 2)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인식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 셋째, 가설 3) 경제적 스트레스로 저소득층 남편과 아내들이 느끼는 정서적 고통은 각각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부부갈등 인식에 기여한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로 저소득층 부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고통에 의해 매개되는 경로와 직접경로가 모두 유의미하리라 가정하였다. 이상의 가설에 기반을 둔 구조모형 1은 위의 그림 1과 같다. 구조모형 1의 검증을 위해 경제적 스트레스로 부부가 인식하는 갈등의 내용, 즉 부부갈등 영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을 갈등인식 변수로 포함시켰다.

구조모형 2 :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갈등이 결혼결과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갈등을 느끼는 영역이나 요인에 따라 갈등반응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Fincham & Beach, 1999).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갈등상태와 갈등반응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갈등반응이나 갈등대처방식과 결혼결과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것이 많으며(예 : 장문선, 김영환, 2002; Conger et al., 1999; Kwon et al., 2003; Kurdek, 1995), 갈등상태와 갈등반응을 구분한 경우에도 갈등요인과 갈등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기보다 각각을 독립변수로 처리하여 결혼만족이나 결혼안정과의 연관성을 탐색한 것이 주로 발견된다(예 : 이선미, 전귀연, 2001; 천혜정, 최혜경, 강인, 2006). 앞서 언급했던 Conger와 그 동료들의 연구(1999)에서 결혼갈등은 부정적인 심리행동 반응으로 조작화 되어 갈등인식과 갈등반응 간의 관계 규명이 생략되었다. 이는 앞서 논의한 Berkowitz(1989)의 이론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압박에 의해 부적 정서나 감정적 각성이 축적되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하지만 결혼의 성공과 실패는 기혼남녀가 직면하는 갈등의 질뿐만 아니라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자원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혼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내용과 그에 따른 갈등반응을 구별하여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Leonard & Roberts, 1998) 그러한 연구방식은 스트레스와 대처반응을 탐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도 강조되어 왔다(예 : Pruchno & Resch, 198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갈등인식과 갈등반응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조사하고, 부부의 갈등인식과 갈등반응이 결혼결과에 연관된 경로를 살펴보았다.

갈등반응의 매개효과

부부갈등이 결혼결과에 미치는 효과는 갈등에 대한 반응이나 대처방식 또는 의사소통 패턴에 의해 결정된다(장문선, 김영환, 2002; 조유리, 김경신, 2000;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Karney & Bradbury, 1997; Kurdek, 1995; Ridley, Wilhelm, & Surra, 2001). 본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로 부부가 인식하게 된 특정 결혼생

활영역의 갈등은 Berkowitz(1989)의 이론대로 공격적 갈등반응을 촉진하고 이성적 대응을 저해하리라는 가정을 하였으며, 부부갈등 인식은 그러한 반응을 통해 결혼의 질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리라 보았다.

갈등반응이 결혼만족과 결혼불안정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결혼결과는 결혼만족, 행복 등으로 대표되는 결혼의 질과 결혼의 해체나 와해가능성으로 측정하는 결혼안정으로 크게 구분된다(Lewis & Spanier, 1979). 기존문헌을 보면 갈등상황에서 부부가 보이는 긍정적(예 : 문제해결, 이성적 대처) 또는 부정적(예 : 공격성, 요구, 상호회피, 폭력사용) 반응은 결혼만족이나 결혼안정과 각각 정적 또는 부적상관을 비교적 일관되게 보인다(이정은, 이영호, 2000; 장문선, 김영환, 2002; 조유리, 김경신, 2000; Conger et al., 1990, 1999; Karney & Bradbury, 1997). 이 연구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로 부부가 인식하는 결혼생활의 갈등은 남편과 아내의 공격적 갈등반응 증가와 이성적인 대처행동 감소를 초래하여 결혼만족과 결혼불안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 보았다. 즉 경제적 압박으로 부부 간의 갈등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공격적 갈등반응이나 비이성적 대응은 상대 배우자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므로(Vinokur et al., 1996)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에 대한 평가를 저해하여 각각의 결혼만족을 감소시키고, 그러한 갈등반응은 결혼자체의 존립에 회의를 초래하여 부부가 느끼는 결혼이 보다 불안정적이 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결혼에 대한 헌신(commitment)을 강화시키는 결혼만족(Impett, Beals, & Peplau, 2003)이 공격적 갈등반응이나 비이성적 대응에 의해 저해된다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결혼의 안정성이 약화되리라 예측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갈등 인식, 갈등반응, 결혼결과 간의 구조모형

경제적 스트레스로 촉발된 부부갈등 인식이 갈등반응을 통해 결혼만족 및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4)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저소득층 부부들의 갈등인식은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인 갈등반응(즉 공격적인 갈등반응 및 비이성적인 대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 둘째, 가설 5) 경제적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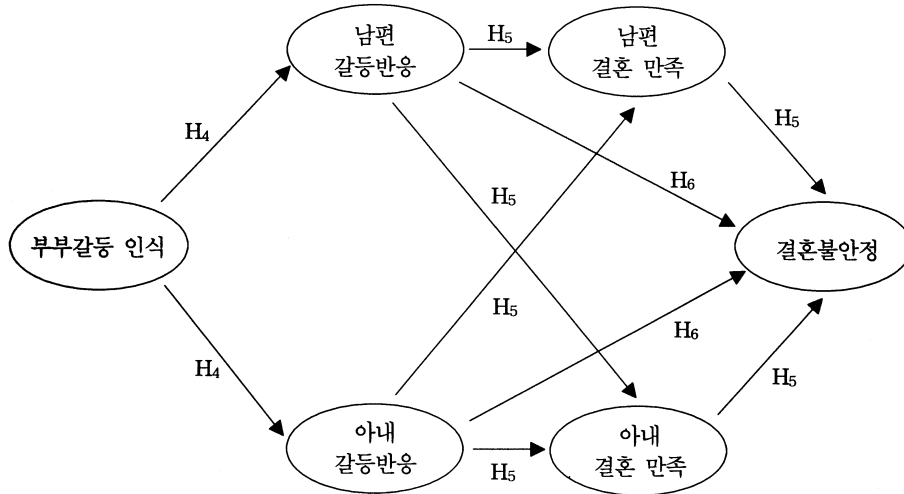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갈등 인식, 갈등반응, 결혼만족, 결혼불안정 간의 구조모형

트레스가 높은 저소득층 부부들의 갈등인식으로 촉발되는 부정적인 갈등반응은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이를 통해 결혼불안정에 기여한다. 끝으로, 가설 6)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저소득층 부부들의 갈등인식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갈등반응은 결혼의 존립 자체에 회의를 초래하여 결혼불안정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 이상의 가설에 기반 한 구조모형 2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위의 그림 2와 같다.

기혼자의 자기해석 특성과 결혼과정에서의 보호역할

경제적 스트레스로 부부갈등이 발생하고 결혼의 질과 안정이 위협을 받는 과정에서 기혼자의 자기해석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성격(personality)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하며(Bolger & Zuckerman, 1995), 기혼자의 자기특성도 스트레스 효과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정서적 안정(emotional stability), 호감성(agreeableness) 등의 성격특성은 직장 과 가정 일의 갈등으로 생기는 우울감, 직업 피로감에서 기혼남성을 보호하며(Kinnunen, Vermulst, Gerris, & Makikangas, 2003), 아내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남편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남편의 배우자 정체감 현재성(salience)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Degarmo

& Forgatch, 2002). 본 연구에서는 성격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자기해석이 한국인의 고유한 사회심리 경험을 밝히는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에 주목하였다.

자기해석(self-construal) 또는 자기관(self-view)은 개인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정의할 수 있다(현경자, 2007). 그러한 자기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자극의 지각과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Markus & Wulf, 1987), 자기해석의 구조와 유형에 따라 개인의 사고성향, 행동동기, 감정표현 등이 체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예를 들면, 인간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로 보는 독립적 자기해석은 타인과의 경계 유지와 자기 고유의 내적 특성(예 : 능력, 자질, 성격), 생각, 느낌 등을 발견하고 표현하려는 성향을 높여(조근호, 2003) 개인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자기존중감의 양성에 기여한다(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반면 인간을 타인과 연계된 존재로 보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타인과의 결속 유지와 상황의존적인 자기 특성, 즉 사회적 관계, 지위, 역할, 소속집단 등에 의해 자신을 지각하고 표현하는 성향을 강화시켜(조근호, 2003),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 동기를 양성하며 그에 필요한

사회기술을 발달시킨다(Cross & Madson, 1997). 따라서 인간의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해석은 결혼생활에서 남녀의 심리행동적 반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결혼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현경자, 2004, 2007; Clements, Cordova, Markman, & Laurence, 1997).

예를 들면, 서울지역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관은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만족에 기여를 하고,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만족과 정적 상관성이 있는 관계적 안녕감을 촉진하는 한편 결혼생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하였다(현경자, 2004). 또한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은 독립적 자기해석이 강하거나 두 자기해석이 모두 낮은 유형보다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보고하며, 그러한 정적관계는 결혼만족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현경자, 2007). 기존문헌을 보면, 관계적 자기정체감이 높은 기혼자는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관계만족도가 높고(Acitelli, Rogers, & Knee, 1999), 타인에 민감하고 지지적인 성향은 부부관계에서 상호이해와 유대감을 도모하여 결혼의 행복도를 높인다(이미숙, 1997).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가 요구되는 지점, 즉 경제적 압박을 경험하는 지점에서 자기해석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앞서 논의한 대로 자기해석의 유형에 따라 개인의 사고성향, 행동동기, 감정표현 등이 체계적으로 달라진다면(Markus & Kitayama, 1991), 자기해석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및 반응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특정 자기해석의 발달과 더불어 양성되는 심리사회적 특성, 즉 자기존중감이나 원만한 대인관계 또한 스트레스 극복에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 및 심리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개인차가 매우 크며, 그러한 관계는 자기존중감, 지지적인 사회관계 등의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된다(DeLongis, Folkman, & Lazarus, 1988). 따라서 자기해석의 스트레스 조절기능에는 그러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긍정적 역할이 포함되리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한편 Lazarus와

Folkman(1984)의 대처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행동은 크게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중심대처(problem focused coping)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중심대처(emotion focused coping)는 스트레스 요인의 제거나 개선이 어려울 때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적 정서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해 개인이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을 의미하며, 상황에 대한 재평가, 의미부여, 자기조절 노력 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각각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를 촉진할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해석은 결혼생활을 자기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스트레스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자기존중감(최미례, 이인혜, 2003)을 양성하여(Heine et al, 1999)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역경 극복에 필요한 배우자와 주변인들의 이해와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고, 주어진 환경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나 의미발견을 가능하게 하여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Conger 등(1999)의 연구에서 경제적 압박으로 부부들이 느끼는 정서적 고통은 배우자와의 지지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의존적 자기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낮추는데 중요하게 기여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편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경제문제와 같은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부부 간의 대응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부부의 갈등인식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가족학자들의 지적대로 부부가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결혼생활에서 기능적이라면(Epstein, Bishop, Ryan, Miller, & Keitner, 1993), 독립적 자기해석은 문제해결에 중요한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도모하고(현경자, 2004),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돕는 자기존중감(Lippes, 1999)을 양성하여 부부 간의 오해나 의견 차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관계적 민감성을 양성하고(이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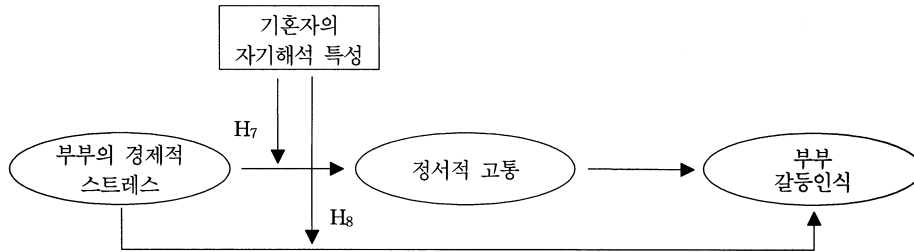


그림 3.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기해석 간의 상호작용이 정서적 고통과 부부갈등 인식에 미치는 효과

1997; Acitelli et al., 1999),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촉진하여 부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충돌이나 대립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각각 경제적 스트레스의 대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두 자기해석의 명확한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기존문헌을 살펴보면, 개인의 독립적 성향을 반영하는 행위주체성(agency)과 관계지향성을 반영하는 친교성(communion)은 각각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체적 또는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친교성에 의해 완화되지 않은 극단적 행위주체성이나 행위주체성에 의해 완화되지 않은 극단적 친교성은 신체 및 정신건강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Helgeson, 1994). 하지만 국내외 선행연구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결혼생활에 관련한 관계적 정체감(이미숙, 1997; Acitelli et al., 1999)이나 배우자 역할에 대한 정체감(Degarmo & Forgatch, 2002), 친교성(Helgeson, 1994) 등을 촉진하는 상호의존적 자기의 기능이 특히 중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은 간접적으로 결혼만족에 기여한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직간접적으로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 총 효과에 큰 차이를 보였고(현경자, 2004),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이 다른 어떤 자기해석 통합유형보다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높게 보고하였지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현경자,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부부가 자신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결혼생활에서 특히 중요하며, 자기해석이 한국인의 결혼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이나 어떤 식의 자기해석 통합이 기능적인지를 밝힐 수 있는 다

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정과 결과에 기여하는 자기해석의 유형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각각의 조절기능을 우선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기혼자의 자기해석이 결혼생활의 보호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이상의 논의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각각이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적효과를 조절하여 저소득층 부부들의 정서적 고통과 갈등인식을 낮출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설의 검증을 통해 자기해석과 같은 개인특성이 저소득층 부부들의 결혼생활을 돕는 심리적 자원이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첫째, 가설 7) 경제적 스트레스가 저소득층 부부들의 정서적 고통에 미치는 효과는 각자의 자기해석 특성에 의해 조절된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각각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 확보 등의 노력을 촉진하여 남편들과 아내들의 정서적 고통을 낮춘다. 둘째, 가설 8) 경제적 스트레스가 저소득층 부부들의 갈등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각자의 자기해석 특성에 의해 조절된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각각 부부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과 이해를 도모하여 남편들과 아내들의 부부갈등 인식을 낮춘다. 이상의 조절가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위의 그림 3과 같다.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며, 정규교육 과정에 있는 자녀를 적어도 하나 이상 둔 저소득층 부부로 한정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상대적이므로 모든 계층

의 부부들이 경험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부부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갈등은 자녀교육의 부담이 큰 저소득층 부부들 사이에서 보다 만연하리라 보았다. 따라서 첫 자녀가 대학교 4학년 이하인 가정의 부부들로 제한하였으며, 2005년도 가족 총소득액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3인가족 이하는 2,400만원 이하, 4인가족 이상은 3,000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한정하였다.⁵⁾ 무작위로 시작하는 체계적 표집방식에 의해 서울시의 25개 구 중 13개 구를 선정하고 선택된 구 내 저소득층 밀집 동을 중심으로 14쌍에서 16쌍의 부부를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 표집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훈련된 조사자들이 자료수집을 하였다.⁶⁾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의 대다수는 30대와 40대에 속하였으며, 남편과 부인의 평균 연령은 각각 43.11세 ($SD=5.85$)와 39.97세 ($SD=5.52$)로 부부 간에 평균적으로 3.14세의 나이차가 있었다($t=5.28, p<.01$). 남편과 부인의 평균 교육연수는 각각 12.91년 ($SD=2.01$)과 12.41년 ($SD=1.73$)으로 약 0.5년의 차이를 보였으며($t=2.54, p<.01$), 남편들의 63%와 부인들의 78%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남편과 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 차이는 우리나라 기혼남녀 연구에서 발견되는 특성과 일치한다. 직업상태를 보면, 남편은 94.4%, 부인은 42.1%가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경우, 정규직의 비율이 66.7%로 남편의 직업이 안정되지 않은 가정이 33.3%를 차지하였으며, 부인의 경우 직업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약 40% 중 과반수(전체의 19.13%)만이 정규 직장을 갖고 있었다. 참여부부들의 가족소득은 처음 표집의 목적대로 낮았다. 세금을 제하기 전 총소득액 1,200만원 미만인 최저 빈곤층의 비율이 약 9%, 총소득액 1,2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층의 비율이 45.6%이었고, 2,4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소득층의 비율이 45.1%로 나타났다.⁷⁾ 조사대상 부부들은 남편

과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가 96.7%로 높게 나타났고, 결혼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5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19.1%를 차지하였다. 끝으로,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의 비율이 37.2%로 낮았고, 다수(62.8%)가 전세, 월세 또는 공공/무상 임대 형태의 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 부부들의 가족 총소득액과 주거지 소유형태 분포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부부들이 표집목적에 부합하는 저소득층에 속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배우자 개인과 부부 단위의 현상을 구별하여 측정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인식(구조모형 2), 결혼불안정은 부부 모두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부단위의 측정을 하였다.⁸⁾ 그 외 변수들, 정서적 고통, 부부갈등 인식(구조모형 1), 갈등반응, 결혼만족은 부부 각자의 주관적 상태가 타 현상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필 수 있도록 개인단위의 측정을 하였다.⁹⁾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의 측정은 Conger 등(Conger et al.,

1990)의 척도(통계청, 2006) 이들의 소득에 의한 빈곤감이 상대적으로 높으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인가구 기준 소득액과 비교하여 참여부부들의 경제상태를 추정해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4인가구 표준생계비는 월 448만원이고, 2006년도 근로자 임금평균은 월 247만원으로 연간 총소득액이 약 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4인가족 이상의 조사대상 부부들에게 연간 가족 총소득액을 세금공제 전 3,0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근로자 임금 평균수준이나 그 이하의 소득수준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4인가구 표준생계비의 55% 선에 해당하므로,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8) 부부 단위의 측정은 부부 모두의 점수를 고려하므로 남편과 아내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모두 높게 경험할 때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남편과 아내 모두 경제적 압박을 높게 느낄 때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스트레스의 부정효과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부부단위의 측정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9)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인식이 예측대로 구조모형 1 검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갈등인식에 따른 갈등반응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2에서는 부부단위의 갈등인식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직장을 갖고 있을 경우 가구 총 소득액이 표집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표본에 포함시켰다.
6) 선택된 구 내 저소득층 밀집 동은 구청을 통해 파악하였다. 표집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자에게 전달 한 구체적 지침은 지면의 한계로 생략하였으며 연구자를 통해 구할 수 있다.
7) 이러한 소득에 대한 주관적 빈곤감은 가족 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 참여부부들의 가족 수 평균을 보면 4.28명 ($SD=1.04$)으로 2002년 우리나라 도시가구원 수 평균인 3.47

1999)이 사용한 경제적 압박(economic pressure) 척도를 이용하였다. 경제적 압박은 청구서 및 생필품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계속 소비를 줄여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상적인 짜증과 어려움을 나타낸다. 경제적 압박 척도는 세 가지 지표, 즉 부부의 지불능력(3개 항목), 구입능력(8개 항목), 경제적 조정경험(15개 항목) 등을 측정하는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구체적으로, 지불능력은 지난 1년간 가족의 지출에 필요한 돈의 충분 정도, 고지서 지불의 어려움 정도, 그리고 월말에 남은 돈의 정도로 측정했고, 구입능력은 지난 1년간 8개 항목(예: 의복비, 가정용품, 의료비, 교육비 등)의 구입 또는 유지에 필요한 돈의 충분 정도로 측정하였다. 끝으로, 경제적 조정경험은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인 곤란으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15가지 행위(예: 대출을 받음, 보험료 납입 연기, 세금 연체 등)의 유무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압박지표를 구성하는 지불능력, 구입능력, 경제적 조정경험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70, .95, .76 으로 수용가능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부부 각각의 경제적 스트레스 점수는 세 하위 지표의 총점으로 산출하여 범위가 11부터 79까지이며, 신뢰도계수는 .89로 우수했다. 부부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남편과 아내의 경제적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을 이용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하위지표별로 부부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고통

부부 각자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은 우울, 불안, 적대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우울감은 우울 고위험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Radloff & Locke, 1986, p.177). 응답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열거된 증상을 경험했는지 생각해보고 4점 척도(1=거의/전혀 그렇지 않음, 4=거의 항상/늘 그랬음)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우울척도 점수는 20개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묘사된 항목은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표본의 우울척도 신뢰도계수는 .86으로 우수했다. 한편 불안과 적대감은 Derogatis(1983)가 개발한 간이 정신진단검사 개정판(Symptom Checklist-90-Revision : SCL-90-R)의 항목을 이용하였다. SCL-90-R은 9개 증상을 측정하는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불안 증상(예: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10문항과 적대감 증상(예: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진다”)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진단검사 목록에 포함된 불안 및 적대감 관련 행동들을 어느 정도 심하게 경험했는지 생각해보고 5점 척도(1=전혀 없었다, 5=아주 심했다)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불안과 적대감 척도는 각각 측정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나 적대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각각의 신뢰도계수는 .91과 .89로 우수했다. 정서적 고통은 우울, 불안, 적대감 척도점수 총합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자기해석

응답자의 자기해석은 Hyun(1995)이 개발한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독립적 자기해석은 타인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지식, 내면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 타인과의 경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등을 묘사한 1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예: “나는 내가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타인과 관련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타인의 평가에 대한 관심,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등을 묘사한 1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예: “나는 항상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수행하는 역할들이 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각 척도의 응답범위는 ‘1.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에서 ‘8. 전적으로 그렇다’까지 8점 척도가 주어졌으며, 각각의 자기해석 척도점수는 측정항목들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5와 .84로 나타났다.

10) 이 척도는 소수의 포괄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예: Kessler et al., 1988)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의 구체적인 경제상황과 경험을 측정하며, 미래에 예측되는 경제상황 보다는 과거 및 최근에 일어난 실제 경제사건 혹은 여건들을 사정하도록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들, 예를 들면, 저소득(low-income)과 실직(unemployment) 등의 부적 영향은 경제적 압박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행동이나 경험에 의해 중재되고 있음이 드러나, 척도의 유용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왔다(Kessler et al., 1988).

갈등인식

부부의 갈등인식은 결혼생활에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영역을 망라하여 총 19가지에 걸쳐 측정하였다. 기존의 부부갈등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예 : 이동원, 1988; 최선희, 전명희, 1999; Kurdek, 1994b)를 참고하여 크게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예 : 금전관리, 중요한 일 결정), 생활방식(예 : 생활습관,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의 역할기대, 여가 활동, 가사일 분담, 종교/신앙생활), 부부관계(예 : 애정, 성문제,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기혼자의 개인적 특성(예 : 인생관/가치관, 전통이나 관습에 대한 태도, 친구문제, 음주/흡연), 그리고 가족문제(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인척을 대하는 면, 자녀양육방식) 등을 측정하였다. 배우자 각각이 각 갈등 영역에 대한 부부 간의 의견일치 정도를 4점 척도(1=거의 틀림; 2=틀릴 때가 더 많음; 3=같은 때가 더 많음; 4=거의 같음)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빈번함을 의미하도록 자료 분석 시 역코딩을 하였다.

총 19가지 부부갈등 영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의 고유값이 8.7로 나타났고, 고유값이 1에 근접한 2, 3요인에 비해 설명력이 40.5%로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구조모형 1의 검증을 위해 1요인에 부하된 변수들 중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이고, 회귀분석을 통해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발견된 영역 9개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금전관리, 자녀양육, 중요한 일 결정, 역할기대 등의 가정생활 관련 갈등, 사랑 및 애정 문제와 같은 부부관계 갈등, 그리고 인생관, 관습에 대한 태도, 장래계획, 관심사 등 개인의 가치관/인생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의미상 구분되어 이들을 세 개의 갈등인식 지표로 구성하여 구조모형분석에 포함시켰다.¹¹⁾ 9개 항목으로 구성된 갈등인식 측정도구의 신뢰도계수는 .89로 우수했다.

갈등반응

갈등반응은 기존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세 가지 갈등반응 척도를 참고하여 총 30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구체

적으로, Margolin, Fernandes, Gorin과 Ortiz(1982)의 갈등반응목록수정본 16개 항목, Kurdek(1994a)의 갈등해결방식척도 16개 항목, 그리고 조유리와 김경신(2000)이 사용한 갈등반응척도 21개 항목이 고려되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반응은 총 30개 항목의 요인분석을 통해 드러난 6개 요인 중 1요인, 이성적 대응과 2요인, 공격적 갈등반응을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¹²⁾ 이성적 대응 요인은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반응을 나타내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배우자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배우자와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공격적 갈등반응 요인은 “화난 감정을 거친 행동으로 표현한다”, “배우자를 때리는 등 해를 가한다”,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로 위협한다” 등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배우자와 갈등을 느낄 때 어느 정도 설문지에 제시된 갈등반응을 보이는지 생각해보고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각 갈등반응의 척도점수는 요인별 총 응답의 평균을 이용하였고, 이성적 대응은 역코딩을 하여 공격적 반응과 일관되게 점수가 높을수록 비이성적인 대응을 의미하도록 했다. 이성적 대응과 공격적 갈등반응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73, .78로 수용가능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부정적 갈등반응 점수는 이 두 척도 점수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Kansas 결혼만족척도(KMSS : Schumm, et al., 1986)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MSS는 결혼만족의 주관성을 고려하여 가치중립적이고 일반적인 문항으로 결혼만족을 측정하며, 다른 결혼만족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여 척도의 유용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왔다(정현숙, 1997). 응답자가 결혼생활,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각각 측정한 후 이 세

11) 9개 변수들의 1요인 부하량은 역할기대를 제외하고 모두 .45 이상으로 높았으며, 역할기대에 대한 갈등은 부하량이 .34로 나타났다. 이 중 자녀양육 및 관습에 대한 태도 갈등은 남편 집단에서 거의 유의미한 수준인 $p < .10$ 으로 나타났으나, 아내 집단과 전체집단에서 차지하는 설명력이 높아 갈등인식 변수의 구성에 포함시켰다(표 1 결과 참조).

12) 요인분석을 통해 드러난 6개의 갈등반응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이성적 대응(5개 항목); (2)공격적 갈등반응(4개 항목); (3)순응적 반응(4개 항목); (4)철회 및 회피(3개 항목); (5)외부도움 요청(3개 항목); (6)부정적 태도표출(3개 항목). 이러한 6개 요인들은 기존척도에서 제시한 갈등반응 요인들과 매우 유사하여 측정된 요인들의 타당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결혼만족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항목은 '1. 전적으로 불만족'부터 '7. 전적으로 만족'까지 7점 척도가 주어졌으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의 신뢰도계수는 .92로 우수했다.

결혼불안정

결혼불안정의 측정은 Booth, Johnson과 Edwards(1983)가 개발한 결혼불안정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해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부부상호 간의 행동심리 상태가 결혼을 왜해시키려는 경향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지난 3년 사이에 귀하나 배우자가 이혼을 심각하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내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3년 사이에 이혼이나 별거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등이 척도에 포함되어 있다.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지난 3년 사이의 결혼에 대한 생각, 느낌, 경험 등을 기준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질문에 지난 1년 사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후속 질문을 추가하여 근래의 결혼불안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총 10개 문항은 각각 2점 척도(1=예, 2=아니오)를 이용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시 ‘아니오’를 0으로 재코딩하여,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결혼이 불안정적이고, 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결혼불안정 점수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평균을 이용하였다. 부부의 결혼불안정 점수는 남편과 아내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는 남편과 아내점수를 각각 하위지표로 포함시켰다. 전체표본의 결혼불안정 신뢰도계수는 .90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인식 간의 관계와 자기해석 특성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성은 가변수로 처리하여 남성=0, 여성=1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교육수준은 정규교육을 받은 해수로 측정하였다. 건강상태의 측정은 “귀하는 현재 본인

의 건강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질문을 이용하였다. 응답항목으로 ‘1. 매우 건강하다’부터 ‘5.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다’까지 5점 척도가 주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음을 의미하도록 역코딩을 하였다.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세 단계를 거쳤다. 첫째, 경제적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부갈등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혼생활의 영역별 갈등인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사각회전방식을 이용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을 위해 AMOS(Analysis Moment of Structure) 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모수(parameter)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고, 연구자료에 결측값이 없었으므로 분석에는 리스트 단위 공변량 자료가 사용되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전반적 부합지수인 카이제곱치와 그 확률치, 표본크기의 변화나 다변량 정규분포의 위반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모델의 적합도를 잘 나타내주는 기초부합치(GFI : Goodness of Fit Index)와 조정부합치(AGFI :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표준부합치(NFI : Normed Fit Index)와 비교부합치(CFI : 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비표준부합치(Non Normed Fit Index : NNFI or TLI)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이순복, 1990; Raykov, Tomer, & Nesselroade, 1991). 일반적으로, ‘연구모형이 현실자료에 잘 맞는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만큼 카이제곱치가 클 경우($p < .05$ 이하)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러한 결과는 표본크기에 민감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카이제곱치를 자유도로 나눈 수치(CMIN/df)가 3 이하일 때 모형수용이 가능하다는 점(Kline, 1998)과 앞서 언급한 적합도 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기초부합치(GFI) 지수는 .90 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으며 .95 이상이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조정부합치(AGFI)는 .9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Kline, 1998). 표준부합치(NFI), 비교부합치(CFI) 및 비표준부합치(TLI)의 값 또한 .90 이상이 되어야 하며,

.95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RMSEA 값은 .05 이하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끝으로, 자기해석의 조절효과(경제적 스트레스와 자기해석 특성의 상호작용)검증은 최소제곱법(OLS : Ordinary Least Squares)에 의한 회귀분석 방식이 공변량구조분석을 이용한 다집단분석 방식 보다 상호작용 효과 파악에 강력한 점을 고려하여(Conger et al., 1999, p.65),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 : 경제적 스트레스×자기해석 유형)들을 포함시킨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¹³⁾ 관련변수들이 연속변인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독립변인을 센터링하여 편차점수로 변환한 후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결 과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부갈등 인식 영역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의 갈등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부부집단과 남편 및 아내 집단을 구별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스트레스로 부부가 느끼는 배우자와의 갈등은 결혼생활의 특정 부분에 치우침이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었다. 총 19가지 갈등영역에 대한 개별분석 결과를 보면, 남편과 아내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갈등영역은 7가지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금전관리, 사랑/애정, 인생관/가치관, 중요한 일 결정, 장래계획, 관심사,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의 역할기대에 대하여 배우자와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대립될 때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그러한 갈등인식 변수들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3%에서 9%사이로 나타났다.¹⁴⁾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생활습관이나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인

표 1. 19개 결혼생활 갈등영역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회귀분석 결과

갈등인식 영역	전체 (n=366)		남편 (n=183)		부인 (n=183)	
	β	R ²	β	R ²	β	R ²
금전관리	.22***	.05	.24***	.06	.20**	.04
여가/취미 활동	.08	.01	.05	.00	.10	.01
사랑/애정	.20***	.04	.21**	.04	.20*	.04
인생관/가치관	.22***	.05	.16*	.03	.28***	.07
자녀양육	.24***	.05	.12*	.02	.34***	.11
성생활	.12*	.01	.14*	.02	.12	.02
관습에 대한 태도	.23***	.05	.15*	.02	.31***	.09
가사분담	.11*	.01	.14*	.02	.09	.01
중요한일 결정	.23***	.05	.22**	.05	.23**	.05
종교/신앙	.03	.00	.00	.00	.05	.00
부부장래 계획	.26***	.06	.21**	.04	.30***	.09
배우자 친인척 대응태도	.08	.01	.07	.01	.07	.01
생활습관	.10*	.01	.15*	.02	.06	.00
관심사	.20***	.04	.20**	.04	.18*	.03
함께 보낸 시간	.12*	.02	.18**	.03	.08	.01
음주/흡연 태도	.11*	.01	.14*	.02	.09	.01
서로에 대한 역할기대	.20***	.04	.16*	.03	.23**	.05
나의 친인척 대응태도	.13*	.02	.08	.01	.18*	.03
친구관계/사교	.15**	.02	.13*	.02	.17*	.0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식은 남편집단에서만 유의미했고, 자신의 친인척을 대하는 태도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은 아내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아내집단에서 의미 있는 부부갈등 영역이 남편집단 보다 2개 더 발견되었고(11개 vs. 9개), 경제적 스트레스의 설명력이 남편집단에 비해 두 배에서 네 배 이상 높은 것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내들이 인식하는 자녀양육, 관습에 대한 태도, 가치관/인생관, 장래계획에 대한 부부갈등은 경제적 스트레스로 설명되는 부분이 7%에서 11%로 나타났는데, 남편 집단에서의 그러한 비율은 2%에서 4%에 그쳤다. 요약하면, 경제적 스트레스는 예측대로 연구참여 부부들이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나 충돌을 인식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부부가 갈등을 인식하는 영역들은 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양육, 가치관/인생관, 관습에 대한 태도 등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효과가 아내집단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 경제적 압박이 아내의 부부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특히 큼을 유추할 수 있었다.

13) 자기해석 점수의 고저 집단을 나누어 공변량구조분석을 이용한 다집단분석을 실시할 경우, 본 연구의 표본 수가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운 점도 분석방식 선택에 참작하였다.

14) 나이,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각 갈등인식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1단계에서 통제된 후의 추가 설명력을 뜻한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건강상태를 제외하고 거의 미미하여 표 1에 제시하지 않았다.

표 2.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결과 관련 구인변수들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경제적 스트레스	-									
2. 남편 정서적 고통	.20**	-								
3. 아내 정서적 고통	.26***	.44***	-							
4. 남편 갈등인식	.30***	.38***	.32***	-						
5. 아내 갈등인식	.34***	.29***	.41***	.65***	-					
6. 남편 부적 갈등반응	.27***	.39***	.32***	.54***	.51***	-				
7. 아내 부적 갈등반응	.19*	.21**	.40***	.37***	.43***	.47***	-			
8. 남편 결혼만족도	-.15*	-.38***	-.28***	-.62***	-.50***	-.48***	-.47***	-		
9. 아내 결혼만족도	-.31***	-.32***	-.51***	-.51***	-.73***	-.50***	-.52***	.55***	-	
10. 결혼불안정	.33***	.40***	.49***	.43***	.48***	.34***	.37***	-.50***	-.53***	-
평균	39.20	1.58	1.71	2.15	2.19	2.09	2.06	4.89	4.43	1.56
표준편차	8.43	.46	.55	.55	.60	.76	.77	1.10	1.32	2.30

* $p < .05$, ** $p < .01$, *** $p < .001$

경제적 스트레스, 정서적 고통, 부부갈등 인식, 갈등반응, 결혼결과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고려된 잠재구인(latent construct) 변수들 - 경제적 스트레스, 정서적 고통, 갈등인식, 갈등반응, 결혼만족, 결혼불안정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¹⁵⁾ 전반적으로 분석에 고려된 잠재구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가 예측된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구조모형 1의 잠재구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표 2에서 보면, 예측대로 경제적 스트레스는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고통($rs = .20, .26, ps < .01, .001$ 각각) 및 갈등인식($rs = .30, .34, ps < .001$ 각각)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고통이 클수록 이들이 인식하는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rs = .38, .41, ps < .001$ 각각) 상대 배우자가 인식하는 갈등정도도 높았다($rs = .29, .32, ps < .001$ 각각). 구조모형 2의 잠재구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도 예측과 일관된 방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인식은 이들의 부정적 갈등반응($rs = .54, .43, ps < .001$ 각각)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그러한 부

15) 잠재구인변수들을 구성하는 하위지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지면의 한계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정적 갈등반응은 각각 자신과 상대배우자의 결혼만족과 부적상관($rs = -.47 \sim -.52, ps < .001$)이 있었고,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하는 결혼불안정 정도가 낮았다($rs = -.50, -.53, ps < .001$ 각각). 요컨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고려된 잠재구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구조모형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모두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경제적 스트레스, 정서적 고통, 부부갈등 인식, 갈등반응, 결혼결과 간의 구조모형

본 연구의 구조모형들에 대한 분석에 앞서 자료가 최대우도 추정방식(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서 전제하는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에 부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다변량 첨도 및 특히 케이스들(outliers)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Kline, 1998),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나 우려할만한 수준의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모형분석 시에는 구인변인들에 대한 잔여분 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고려하여 공변량을 분석에 포함시켰다.¹⁶⁾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인식 간의 구조모형 1과 부부갈

16) 그림 4-6에 제시된 구조모형분석 결과에는 이들에 대한 결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3.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결과 간의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모형검정결과	χ^2	df	p	GFI	AGFI	NFI	CFI	TLI	RMSEA
구조모형1	80.21	69	.17	.95	.91	.95	.99	.99	.03
구조모형2	94.66	69	.02	.94	.89	.96	.99	.98	.05
단일구조모형	279.88	214	.002	.89	.85	.92	.98	.97	.04

등 인식 및 갈등반응과 결혼결과 간의 구조모형 2 그리고 이 두 구조모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단일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3에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 정서적 고통, 부부갈등 인식 간의 구조모형(가설1-3)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의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가설 1은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고통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구조모형 1의 경로별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표시한 그림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부가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클수록 남편과 아내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beta=.15, .29, ps<.05, .01$ 각각).

또한 가설 2의 예측대로 부부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남편과 아내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높았고 ($\beta=.21, .22, ps<.01$ 각각), 가설 3과 일관되게 남편과 아내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이 클수록 자신과 상대 배우자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의 정도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자신 : $\beta=.36, .35, ps<.001$ 각각/배우자 : $\beta=.16, .17, ps<.05$ 각각). 즉 경제적 스트레스로 부부가 느끼는 갈등인식은 정서적 고통을 통한 경로와 직접경로 모두 유의미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연구가설 1, 2, 3은 자료에 의해 지지되었다. 각 경로별로 남편집단과 아내집단의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스트레스로 아내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이 남편보다 거의 배 이상 컸으나, 그 외 경로의 효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제적 스트레스가 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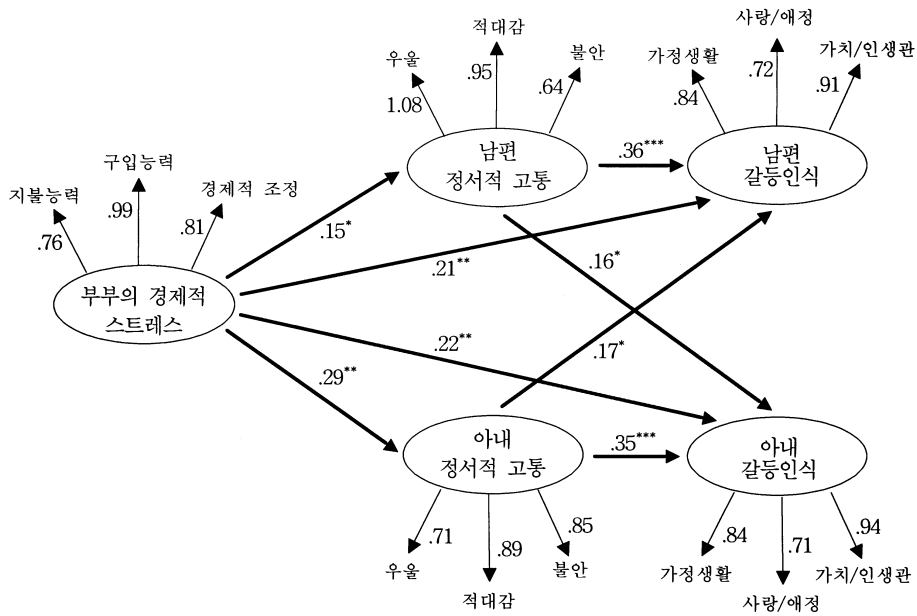


그림 4. 저소득층 부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정서적 고통, 갈등인식 간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05$, ** $p<.01$, *** $p<.001$, 진한 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임)

층 아내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구조모형 1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표 3을 보면 카이제곱(χ^2) 값이 80.21($df=69$, $n=183$), $p=.17$ 로 연구모형이 실제 자료에 부합함을 시사하였고, CMIN/ df 값이 1.16으로 기준치인 3보다 낮았다. 기초부합치(GFI)는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는 .95로 나타났고, 조정부합치(AGFI)=.91; NFI=.95; CFI=.99; TLI=.99; RMSEA=.03으로 구조모형 1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우수했다. 또한 구조모형 1에 고려된 각각의 잠재구인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는 예측과 일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s<.001$).

끝으로, 구조모형 1의 변수들로 구성된 인과관계모형의 대안 평가가 중요함을 고려하여(Kline, 1998), 역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저소득층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자신과 상대 배우자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과 부부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그러한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고통은 부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인식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χ^2) 값이 80.21($df=69$, $n=183$), $p=.17$ 로 연구모형이 실제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적합도 지표들의 값도 구조모형 1과 일치하여, 역모형의 적합도가 구조모형 1과 동등하게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역모형에서는 분석에 고려된 8개 경로 중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인식이 각자의 정서적 고통을 높이는 2개 경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구조모형 1의 인과방향이 실제 자료에 보다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Conger 등(1999)의 연구와 일관되게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인식 간의 직접관계를 생략한 대안모형을 살펴본 결과, 카이제곱(χ^2) 값이 91.64($df=71$, $n=183$), $p<.05$ 로 측정변수들 간에 공변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적합도 지표들의 값도 구조모형 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조모형 1이 대안모형들 보다 실제 자료에 보다 잘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갈등 인식, 갈등반응, 결혼 결과 간의 구조모형(가설 4-6)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갈등이 갈등반응을 통해

결혼만족 및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설은 자료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4는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저소득층 부부들의 갈등인식은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인 갈등반응(즉 공격적인 갈등반응 및 비이성적인 대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림 5에 나타나듯이, 부부의 갈등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예측대로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인 갈등반응이 높게 나타났다($\beta=.94$, $.73$, $ps<.001$). 부부들의 갈등인식으로 촉발되는 부정적인 갈등반응은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이를 통해 결혼불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 5는 남편집단에서만 지지되었다. 연구참여 남편들의 공격적 반응과 비이성적 대응은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고($\beta=-.51$, $-.71$, $ps<.05$ 각각), 아내들의 그러한 부정적 갈등반응은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9$, $-.20$, $ps>.05$ 각각).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은 예측대로 부부가 인식하는 결혼불안정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beta=-.69$, $-.56$, $ps<.001$, $.01$ 각각). 즉 남편의 부정적인 갈등반응은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을 저하시키는 경로를 통해 결혼불안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경제적 압박이 큰 저소득층 부부들의 갈등인식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갈등반응은 결혼의 존립 자체에 회의를 초래하여 결혼불안정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는 가설 6은 자료에 의해 지지되지 않았다. 남편의 공격적 반응과 비이성적 대응은 결혼불안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고($\beta=.17$, $p>.05$), 아내의 그러한 반응은 예측과 달리 결혼불안정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9$, $p<.10$).

표 3에 제시된 구조모형 2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채택가능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카이제곱(χ^2) 값은 94.66($df=69$, $n=183$), $p=.02$ 로 측정변수들 간에 공변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MIN/ df 값이 1.37로 기준치인 3보다 낮았고, 기초부합치(GFI)는 .94로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는 .95 수준에 근접하였다. 그 외 조정부합치(AGFI)=.89, NFI=.96; CFI=.99; TLI=.98; RMSEA=.05로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은 구조모형 2의 적합도가 적절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구조모형 2에 고려된 각각의 잠재구인 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는 예측과 일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s<.001$). 요약하면, 구조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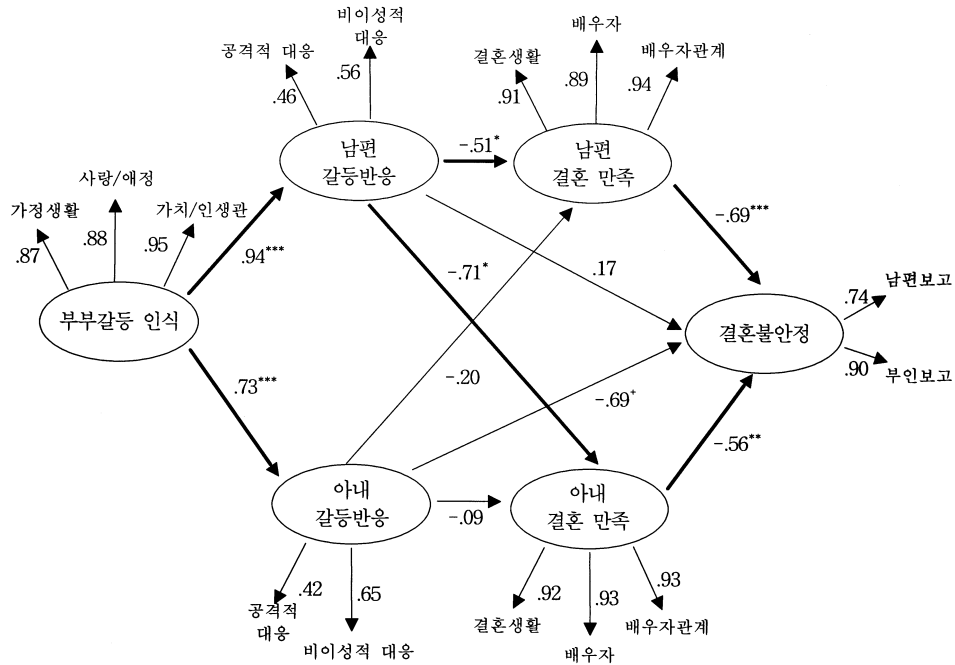


그림 5.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갈등 인식, 갈등반응, 결혼만족, 결혼불안정 간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진한 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임.)

형 2의 변수들 간의 관계는 아내의 갈등반응에서 결혼 불안정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예측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2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가설은 일부만 자료에 의해 지지되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저소득층 부부들의 갈등인식은 남편과 아내의 공격적 갈등반응과 비이성적 대응을 촉발하리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고, 그러한 부정적 갈등반응이 본인과 상대배우자의 결혼만족을 낮추어 궁극적으로 결혼불안정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 5는 남편집단에서만 지지되었다.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 갈등반응이 직접적으로 결혼불안정에 기여하리라는 가설 6은 기각되었다.

끝으로, 구조모형 2의 변수들로 구성된 인과관계모형의 대안 평가를 위해 역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부부가 느끼는 결혼불안정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을 저하시키고, 그러한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은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인 갈등반응과 부적인 관계가 있으리라는 가정과 부부가 느끼는 결혼불안정은 남편

과 아내의 부정적인 갈등반응을 촉진하고 그러한 갈등반응은 각자의 부부갈등 인식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을 둔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χ^2) 값이 125.33($df=69$, $n=183$), $p < .001$ 로 연구모형이 실제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CMIN/ df 값이 1.82로 기준치인 3보다 낮았지만 구조모형 2의 값 1.37보다 높았다. 적합도 지표들의 값은 기초부합치(GFI) .92를 포함하여 AGFI=.85; NFI=.94; CFI=.97; TLI=.96; RMSEA=.07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구조모형 2의 적합도 수준 보다 다소 못하게 나타났다. 또한 역모형에서는 결혼불안정이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 갈등반응을 촉진하는 경로와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 갈등반응이 부부의 갈등인식을 높이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조모형 2에서 부부의 갈등인식이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 갈등반응을 높이는 경로가 유의미하였고, 그러한 인과관계는 부부갈등 연구에서 이론 및 경험적으로 지지되고 있어(Fincham & Beach, 1999)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모형 2의 인과방향이 실제 자료와 보다 잘 부합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결과 간의 단일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1과 2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결과 간의 단일구조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구조모형 1에서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고통이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부부갈등 인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인식 변수를 남편과 아내로 구별하지 않고 부부단위 변수로 전환시켰다. 둘째, 구조모형 2에서 지지되지 않은 갈등반응에서 결혼불안정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였다. 단일구조모형의 분석결과가 제시된 그림 6을 보면, 잠재구인 변수들 간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구조모형 1과 2의 분석결과와 대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구조모형 2에서 기각된 아내의 부정적 갈등반응과 자신의 결혼만족 간의 부적관계가 단일구조모형 분석에서는 거의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27, p = .07$). 적합도 검증 결과, 카이사승(χ^2) 값은 279.88($df=214, n=183$), $p < .01$ 로 측정변수들 간에 공변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MIN/df 값은 1.31로 기준치 3보다 낮았다. 기초부합치(GFI)=.89, 조정부합치(AGFI)=.85로 구조모형 1과 2의 부합도에 비해 낮았지만, NFI=.92; CFI=.98; TLI=.97; RMSEA=.04로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앞서 구조모형 1과 2의 대안모형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실제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족 스트레스 모형 연구자들이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유사한 단일구조모형의 대안 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래 모형이 실제 자료에 보다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예 : Conger et al., 1999; Vinokur et al., 1996), 단일구조모형의 대안 평가는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해석의 조절효과(가설7-8)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이 정서적 고통과 부부갈등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집단과 남편 및 아내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가설 7은 경제적 스트레스로 촉발되는 저소득층 부부들의 정서적 고통이 각자의 자기해석 특성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각각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적효과를 완화시켜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고통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였다. 표 4의 전체집단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은 정서적 고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나, 예측대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성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적 효과를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 p < .05$). 반면 독립적 자기해석의 예측된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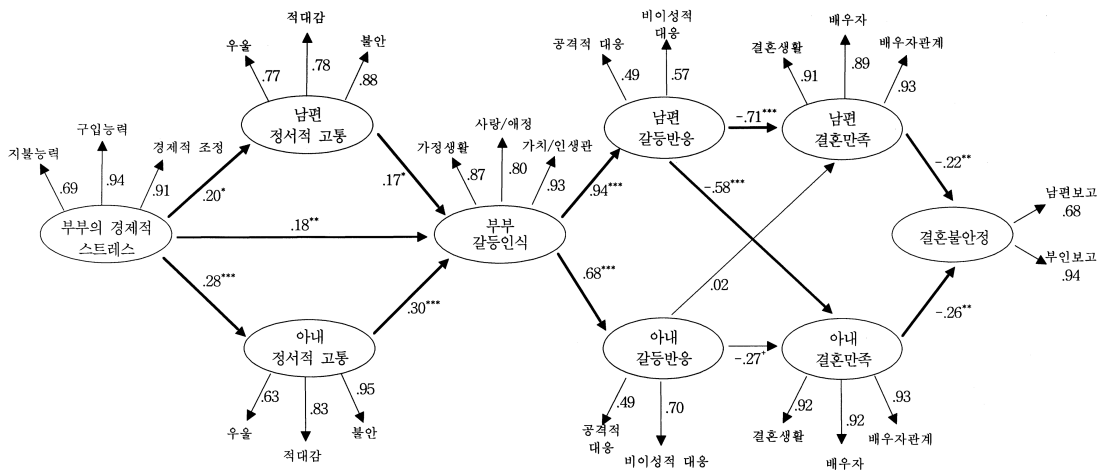


그림 6. 저소득층 부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정서적 고통, 갈등인식, 갈등반응, 결혼결과 간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진한 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임.)

표 4.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기해석 독립성 및 상호의존성의 상호작용이 정서적 고통에 미치는 효과

예측변수	전체(n=366)			남편(n=183)			아내(n=183)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36	.38		2.43	.48		2.57	.53	
경제적 스트레스	.01	.00	.17***	.08	.00	.15*	.01	.00	.21**
독립적 자기해석	.05	.03	.01	-.07	.04	-.01	.01	.04	.02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03	.03	-.06	-.05	.04	-.10	-.03	.05	-.04
스트레스×독립성	.01	.00	.02	-.01	.00	-.02	.08	.01	.12
스트레스×상호의존성	-.08	.00	-.12*	-.04	.01	-.08	-.02	.01	-.21**
연령	-.06	.00	-.08	-.05	.01	-.06	-.08	.01	-.08
교육수준	.04	.01	.02	.07	.02	.03	-.06	.02	-.02
건강상태	-.24	.03	-.42***	-.21	.04	-.39***	-.27	.04	-.45***
성 ^a	.06	.05	.06						
R ²	.26***			.21***			.3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남성=0; 여성=1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편과 아내집단을 구분하여 보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조절효과는 두 집단 모두에서 정서적 고통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아내집단의 결과만 유의미했다($\beta = -.08, -.21, p > .10, p < .01$ 각각). 결론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로 저소득층 부부들이 느끼는 정서적 고통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높을수록 낮아졌고, 독립적 자기해석의 예측된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설 7은 전체집단과 아내집단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조절효과만 지지를 받았다.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각각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적효과를 완화시켜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인식을 낮출 것이라는 가설 8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5의 전체집단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해석의 독립성은 부부의 갈등인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나, 상호의존성은 부부의 갈등인식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beta = -.11, p < .05$). 또한 독립적 자기해석의 상호작용 효과는 예측과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난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상호작용 효과는 예측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기혼자의 성이 같다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적효과를 조절하여 부부갈등 인식이 낮아지며($\beta = -.09, p < .10$), 독립적 자기해석이 높을수록 부부갈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 p = .053$). 이러한 각 자기해석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미한 수준이어서 해석에 신중을 요한다. 남편과 아내집단을 구분하여 보면, 남편집단에서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직접효과와 예측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beta = -.16, -.18, ps < .05$). 구체적으로, 남편들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갈등인식 정도가 낮았고, 그러한 자기해석은 예측대로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적효과를 조절하여 배우자와의 갈등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기해석이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적효과를 완화시켜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인식을 낮추리라는 가설 8은 전체 집단과 남편 집단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조절효과만 지지를 받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부부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 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러한 결혼과정의 부적요소를 완화시키는데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심리적 자원으로 기여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경제적 압박이 부부갈등이나 결혼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구별된다. 첫째,

표 5.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기해석 독립성 및 상호의존성의 상호작용이 부부갈등 인식에 미치는 효과

예측변수	전체(n=366)			남편(n=183)			아내(n=183)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33	.45		3.07	.56		1.7	.63	
경제적 스트레스	.02	.00	.28***	.01	.00	.23**	.02	.01	.31**
독립적 자기해석	.04	.03	.06	.08	.04	.01	.05	.05	.07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08	.04	-.11*	-.10	.05	-.16*	-.04	.06	-.06
스트레스×독립성	.07	.00	.10 ⁺	.04	.01	.06	.08	.01	.10
스트레스×상호의존성	-.08	.00	-.09 ⁺	-.01	.01	-.18*	.03	.01	.00
연령	-.02	.01	-.02	-.06	.01	-.07	.02	.01	.02
교육수준	-.01	.02	-.04	-.01	.02	-.05	-.07	.03	-.02
건강상태	-.14	.03	-.21***	-.16	.04	-.25***	-.12	.05	-.17*
성 ^a	.02	.06	.01						
R ²	.18***			.24***			.16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남성=0; 여성=1

기존연구의 조사대상은 실직 중에 있는 대도시 지역의 미국인(Vinokur et al., 1996), 농촌 및 소도시 지역의 유럽계 미국인(Conger & Elder, 1994; Conger et al, 1990; Conger et al., 1999), 동유럽과 북구의 유럽인(Hraba, Lorenz, & Pechacova, 2000; Kinnunen & Feldt, 2004; Kinnunen & Pulkkinen, 1998), 또는 IMF 위기를 겪은 중산층 한국인(Kwon et al., 2003) 부부들인 반면 이 연구는 저소득층 한국인 부부들을 조사하였다. 둘째, 기존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부류 연구에서 간과한 부부의 갈등인식과 갈등반응을 구별하고, 결혼결과의 양 측면, 즉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분석에 함께 고려하여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갈등의 내용과 결혼결과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혼자들의 탄력적인 개인특성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저소득층 부부들의 갈등인식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발생된 맥락, 즉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갈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Fincham & Beach, 1999)을 고려하여 경제적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부갈등 영역을 우선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인식영역에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남편과 아내 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금전관리, 사랑/애정, 인생관/가치관, 중요한 일 결정, 부부의 장래계획, 관심사,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의 역할기대에 대하여 배우자와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대립될 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과 생활방식에 대한 부부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과 사랑을 저해하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이 반영되는 장래계획, 관심사 등에서 부부 간의 의견충돌을 초래함을 시사한다. 그러한 부부갈등 영역 중 사랑 및 애정 문제, 가치관과 인생관의 문제,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 등은 선행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따라 구분한 부부유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최선희, 전명희, 1999), 사랑 및 애정과 장래계획에 대한 부부갈등은 기혼남녀의 결혼만족 또는 결혼안정에 부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현경자, 200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결혼의 질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며, 본 연구는 그러한 부부갈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 부부가 지각하고 있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내들이 자녀양육, 관습에 대한 태도, 부부의 장래계획 등에 대해 남편과 갈등을 느끼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그러한 갈등인식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설명력이 남편집단에서는 2%에서 4% 사이로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미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었던 반면, 아내집단에서는 9% 이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이 아내들의 부부갈등 인식이 몇몇 영역에서 남편들보다 큰 폭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인식은 질보다 정도에 차이가 큼을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전통적으로 자녀교육 및 가정생활을 담당하는 아내들이 경제적 곤란을 보다 심각하게 지각하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배우자와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결과 간의 구조모형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결과 간의 구조모형은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결혼과정에 고려된 잠재구인(latent construct) 변수들 간의 상관과 각 구인변수와 그 지표들 간의 관계도 예측과 일치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저소득층 부부들의 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가설 1, 2, 3은 자료에 의해 지지되었다. 예측대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저소득층 부부일수록 남편과 아내 모두 정서적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으며,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부 간의 의견 충돌이나 대립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고통은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부부갈등 인식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인식은 각자의 정서적 고통에 의해 매개되는 경로와 직접경로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한편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부 간의 의견 차이나 대립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정서적 고통의 매개효과는 기존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부류의 연구(예 : Conger et al., 1999; Vinokur et al., 1996)와

일관되는데, 기존연구는 매개효과만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 본 연구는 갈등인식과 갈등반응을 구별하여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 간의 갈등인식이 높아짐을 함께 보여주어 의미를 더한다.¹⁷⁾

부부의 갈등인식이 갈등반응을 통해 결혼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가설 4, 5, 6은 자료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4의 예측대로, 부부가 인식하는 가정생활, 사랑/애정, 가치관/인생관 영역의 갈등은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 갈등반응, 즉 공격적 갈등반응 및 비이성적 대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 갈등반응이 결혼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남편 집단에서만 가설 5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예측대로 남편들의 공격적 반응과 비이성적 대응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의 결혼만족을 저하시켰고, 그러한 경로를 통해 부부가 느끼는 결혼불안정이 강화되었다. 이는 Conger 등(1990)의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로 촉발된 남편의 적대적 행동이 아내의 결혼만족을 저해하고, 이를 통해 아내의 결혼불안정을 강화시킨 결과와 상통한다.¹⁸⁾ 단일구조모형 분석에서 아내의 부정적 갈등반응이 자신의 결혼만족을 낮추는 경로도 거의 유의미하게($p=.07$)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내들의 부정적 갈등행동이 자신의 결혼만족을 저해하여 결혼불안정을 높이는 경로도 유효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스트레스로 남편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갈등반응은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을 훼손하고, 아내들의 그러한 행

17) IMF 위기 이후의 한국 중산층 부부들을 조사한 Kwon 등(2003)의 연구에서 경제적 압박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가 아내집단에서만 정서적 고통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와 유사하게 경제적 압박과 결혼갈등 간에 직접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정서적 고통의 측정에 있어 Conger 등(1999)과 본 연구자가 사용한 우울, 불안, 적대감 척도 대신 스트레스 지각척도를 이용하였고, 결혼갈등 또한 갈등인식과 부정적인 심리행동 반응으로 조작화 하여 갈등인식과 반응을 구별한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경제적 압박과 결혼갈등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이 드러난 것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두 연구 모두 한국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18) 이 연구에서 아내의 적대적 행동은 남편의 결혼만족과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한 아내의 적대적 행동이 경제적 압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본 연구의 아내집단 결과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은 자신의 결혼만족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부부가 느끼는 결혼이 보다 불안정적이 됨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남편집단과 아내집단에서 차이를 보인 갈등반응의 효과는 국내의 결혼만족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박영화와 고재홍(2005)이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남편의 비난과 공격 및 감정표출 행동은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준 반면 아내의 비난과 공격은 자신의 결혼만족과만 부적 상관을 보였고, 아내의 감정표출은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남편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갈등행동과 의사소통 방식은 부부의 결혼만족을 저해하지만, 아내의 그런 행동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예측과 달리 자신에게 한정되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한국 아내들의 결혼에 대한 평가는 남편들이 보이는 부적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한국 남편들의 결혼에 대한 평가는 아내들이 보이는 부적행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본 연구의 맥락 속에서 반추해보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 역할이 남편들의 정체감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사회가 그러한 역할에 거는 기대감으로 한국 남성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미숙, 고선주, 권희경, 2000). 본 연구의 경우, 부양자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배우자의 부정적인 갈등반응을 이해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아내의 그러한 행동으로 남편의 결혼만족이 손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저소득층 부부들의 부정적인 갈등반응은 가설 6의 예측과 달리 결혼불안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구조모형 2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아내들의 부정적 갈등반응은 결혼불안정과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경제적 압박으로 부부갈등을 느끼는 아내들이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억제하기보다 표출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결혼안정에 기여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갈등이 결혼불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준 Conger 등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 연구(Conger et al., 1990, 1999)와 상반된다. 미국 부부들은 경제적 압박

으로 인한 결혼갈등이 커짐에 따라 이혼, 별거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반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부부들은 적어도 본 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문제가 많은 결혼의 대안으로 이혼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하고 있는 미국사회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한국사회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Conger 등의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이 미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중서부의 농촌 및 소도시지역 거주자들임을 고려하면,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허용 여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혼이나 결혼불안정에 관련된 문헌을 보면, 결혼의 안정이나 해체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결혼만족과 더불어 결혼의 대안 및 결혼해체의 장애 여부가 중요하다(정혜정, 2002). Udry(1981)는 결혼의 대안여부가 결혼만족 보다도 결혼해체에 대한 예측력이 높으며, 결혼대안은 응답자의 자기자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배우자의 자원과 부적의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기혼남녀 모두 배우자 대안이 많을수록 결혼해체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South & Lloyd, 1995). 경제적으로나 건강 면에서 예비력이 한정된 우리나라 저소득층 부부들(윤태호, 2003)은 우선 자기자원이 적어 결혼대안이 낮으며, 배우자 대안 또한 보수적인 사회문화를 고려할 때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저소득층 부부들의 부정적 갈등반응과 결혼불안정 간에 예측된 결과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 부부들의 결혼 및 배우자에 대한 대안 부재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Conger와 그 동료들이 발전시켜 온 가족 스트레스 모형을 적용하여 저소득층 부부들의 결혼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갈등인식과 갈등반응을 구별하고,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분석에 함께 고려하여 경제적 압박으로 부부들이 경험하는 결혼과정과 결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고통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부의 갈등인식을 높이고, 그러한 부부 간의 갈등인식은 부정적인 심리행동을 통해 결혼만족을 저해하며(Conger et al., 1999; Kinnunen & Feldt, 2004; Kwon et al., 2003; Vinokur et al., 1996), 그로 인해 부부들이 느끼는 결혼불안정이 강화됨(Conger et al., 1990)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 등 결혼의 질에 대한 고려 없이 결혼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을 통해 결혼불안정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킴을 보여준 선행연구 (Conger et al., 1999)를 보완하며, 경제적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결혼만족을 보호할 수 있는 심리적, 대인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남편의 부정적 갈등반응이 결혼에 대한 헌신을 강화시키는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을 모두 낮추어 그러한 부정 심리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특히 중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 연구가 간과한 부분을 보다 면밀히 살펴 관련 지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서적 고통이나 부부갈등을 통해 결혼만족, 결혼안정 등의 결혼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저해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다르지 않다.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정 효과가 우리나라 저소득층 부부들 사이에서도 드러나 경제적 압박, 부부갈등, 결혼결과 간의 관계가 사회계층이나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관됨을 추론할 수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탄력적인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혼자의 개인특성을 밝히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성격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자기해석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독립적 자기해석의 예측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예측대로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정 영향력을 조절하여 아내의 정서적 고통과 남편의 부부갈등 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과 8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처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예측된 조절효과가 아내 또는 남편 집단에서만 드러나 그러한 자기해석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높을수록 전체 및 남편집단의 부부갈등 인식이 낮아지는 결과도 발견되어,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가족의 안녕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양성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실제로 저소득층 부부들의 결혼생활에 기능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관계적 정체감(이미숙, 1997; Acitelli et al., 1999)이나 배우자 역할에 대한 정체감(Degarmo & Forgatch, 2002), 친교성(Helgeson, 1994) 등의 상호의존적 자기와 관련된 특성이 결혼생활에 기여함을 보여준 국내외 선행연구와 상통하여, 기혼자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문화권에 상관없이 결혼생활에 중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저소득층 부부들의 결혼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미치는 효과는 이 연구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적 고통의 어떠한 측면이 아내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 본 결과 정서적 고통의 세 지표, 즉 우울, 불안, 적대감 모두가 낮아지는 결과가 발견되었다.¹⁹⁾ 한국인의 자기해석 예측요인을 조사한 Hyun(1995)의 연구를 보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전통적 가치관을 지지하며, 교육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높은 여성은 전통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따라서 가족의 안녕과 부부유별 존중에 따라 남편의 역할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인내하여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이나 적대감이 적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여성은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와 사회적 지지의 확보로 우울과 같은 심리적 위축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향후 기혼여성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전통적 결혼관이나 유교적 가치관, 배우자에 대한 신뢰, 불안 및 적대감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통해 그러한 가설의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주어진 환경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조절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나 의미창조 등을 가능하게 하여 긍정심리의 경험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들의 우울, 불안, 적대감이 모두 낮아진 결과는 정서중심대처의 결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효과가 남편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아 정서중심대처 해석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부양자 역할을 위협받고

19) 불안과 적대감은 $p < .05$ 수준이었고, 우울은 $p < .10$ 수준(일방향)이었다. 더불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아내의 우울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p < .05$).

있는 저소득층 남편들의 경우 사회구조적인 장애를 아내들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나 의미발견이 보다 어려울 수 있고, 그러한 경로를 통해 정서적 고통을 낮추는 일도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연구에서 남편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적 효과를 조절하여 아내와의 갈등인식을 낮추었는데, 추가분석에서 그러한 조절효과가 부부갈등 인식의 세 지표, 가정생활, 사랑/애정, 가치관/인생관 영역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²⁰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높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관계지향적일 것이라 예상되고,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 아내와의 의견충돌이나 대립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부장적인 한국의 사회구조를 볼 때 가정경제 곤란의 유발자이기 쉬운 남편들의 자기해석이 상호의존적인 것이 부부 간의 갈등인식 감소에 중요함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아내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 의해 부부갈등 인식이 낮아지는 효과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남편의 대응과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러므로 아내집단에서 예측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

기대와 달리 독립적 자기해석의 예측된 조절효과는 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전체집단의 부부갈등 인식이 오히려 높아지는, 예측과 상반된 결과가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 부부들이 경제적 압박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이나 부부갈등을 완화시키는데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을 도우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처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기해석보다 배우자나 주변인들과의 소통과 타협 및 원만한 관계 유지를 도우며, 자기 조절을 위한 정서중심의 대처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기해석이 기능적임을 추론할 수 있다. 대처관련 연구를 보면, 결혼생활에서는 문제중심의 적극적 대처보다 기혼자나 부부의 정서조절을 돕는 정서중심대처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Bowman, 1990), 개인이 변화를 피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와 환경에 관련된 일에는 문제중심대처

의 효과가 한정되어 일반인들이 정서중심대처를 선호하며, 그러한 대처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arlin & Schooler, 1978). 저소득층 부부들에게 경제적 문제는 사회구조와도 연관되어 변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각될 수 있고, 따라서 독립적 자기해석의 예측된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것처럼 부부들이 자신의 환경변화와 개선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라면 독립적 자기해석이 촉진하는 부부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 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돕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기능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로 부부갈등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독립적 자기해석에 의해 감소되되보다 증가한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부부들에게 명확한 의사소통이나 자기주장이 역기능적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결혼생활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한국식의 결혼생활이 부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확대가족 및 원가족과 관련된 인간관계와 도리를 중시하고(현경자, 2004), 아직까지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과 적응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기대하는 사회계층이나 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이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더불어 명확하다면 독립적 자기해석의 부적 효과가 상쇄될 수 있고, 개인의 독립적 사고와 생활수행을 격려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혼환경이 된다면 독립적 자기해석이 한국인의 결혼생활에서도 기능적일 수 있다.²¹ 게다가 결혼관계와 같이 부부 간에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독립적 성향을 반영하는 행위주체성(agency)은 상대 배우자의 안녕 뿐만 아니라 관계유지와 발전에도 중요하다(Abele & Wojciszke, 2007). 따라서 독립적 자기해석이

21) 개인의 독립적 성향을 반영하는 행위주체성(agency)과 관계지향성을 반영하는 친교성(communion)은 각각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체적 또는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Helgeson, 1994), 활기차고 성공적인 결혼의 주요요소로 기혼자의 자기저력(ego strength)과 부부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상호의존성이 제시되고 있다(Ammons & Stinnett, 1980). 또한, 선행연구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은 자존감과 명확한 의사소통을 격려하여 간접적으로 결혼만족에 기여하였다(현경자, 2004).

20) 이 중 사랑 및 애정문제 갈등에 대한 조절효과는 p 값이 .06 이었고, 그 외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한국인의 결혼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없거나 역기능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앞서서 자기해석의 독립성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고저에 따라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22) 어찌면 두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것이 결혼생활에 기능적일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 보다는 기혼자가 처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결혼생활의 방식이나 개인의 결혼환경과 자기해석 간의 적합(fit)이 중요함을 가장해 볼 수 있다.

종합논의와 연구 한계점 및 제언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부갈등은 정도나 빈도에 차이가 있을 뿐 결혼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새롭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의 경험이 지나치거나 도를 넘을 경우 본 연구가 시사하듯이 부부의 결혼만족을 저해하고 결혼의 안정을 위협하므로 사회적인 관심을 요하며, 그러한 결혼과정의 부적 요소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부부의 갈등인식과 갈등반응을 구별하여 경제적 스트레스가 저소득층 부부들의 정서적 고통만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인식을 증가시키며, 특히 아내들의 부부갈등 인식에 폭넓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예측대로 부부가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효과를 조절하여 아내의 정서적 고통과 남편의 부부갈등 인식을 낮추어, 이러한 경로를 통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갈등반응도 간접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남편들의 부정적 갈등반응이 부부의 결혼만족을 훼손하는 중요한 경로로 드러났고, 그러한 갈등반응을 촉발하는 남편의 부부갈등 인식을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남성들이 자신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다양한 교육과 기회의 제공이 중요해 보인다. 그와 같이 기혼남성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양성하는 일이나 기혼여성의 상호의존성을 격려하고 보상

하는 일은 부부갈등과 결혼불안정의 예방차원에서라도 의미가 있다.

저소득층 부부들의 결혼은, 본 연구가 시사하듯이, 역경 극복에 필요한 실질적 대안이나 수단 부족으로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과 같은 개인특성이 저소득층 부부들의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그러한 자기해석의 어떤 측면이 저소득층 부부들의 심리적 안녕과 부부관계를 보호하는지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중요해 보인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기능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심리특성, 즉 가족화합을 위한 자기조절 동기, 관계유지와 개발 동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 사회적 지지의 교환능력, 의미창조를 통한 정서중심대처 등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찰 또는 측정하여,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보호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연구의 의의가 클 것으로 본다. 더불어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생활을 보호하거나 훼손하는 요인들이 사회계층에 따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 갈등반응과 결혼불안정 간의 관계나 독립적 자기해석의 기능이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경제적 스트레스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특성 영역에 포함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 강조되어 온 그러한 자기해석이 결혼생활에 기여함을 부각시켜 한국인들의 고유한 자기특성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가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결혼생활에서 약화될 수 있는 상호의존의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어 결과에 대한 의미부여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 정서적 고통, 부부갈등 인식 및 반응과 결혼결과 간의 구조모형 분석은 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첫 단계의 작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Kline, 1998). 그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는 향후 인과관계의 규명에 유용한 실험연구나 다른 연구방법들을 통해 검증되고, 다듬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하는 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영향력 증가나

22) 경제 수준을 한정하지 않고 서울지역 기혼남녀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두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이 독립적 자기해석이 강하거나,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보다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높게 보고하여(현경자, 2007), 조사대상 부부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구결과와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연구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감소를 의미하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었는데, 이는 두 변수 간의 함수적 관계(functional relationship)를 뜻한 것으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의 표본은 정규교육 과정의 자녀를 적어도 한 명 이상 둔 서울지역 저소득층 부부들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 갈등, 결혼결과 간의 구조모형분석 결과는 종단적 자료와 다양한 측정방식을 활용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자신을 가져볼 수 있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드러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보호기능이 생존을 위해 부부의 상호의존이 필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강하리라 예상되는 저소득층 부부들에게만 유효한 현상인지, 아니면 문화나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부들에게 공통된 현상인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그러한 자기해석 기능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작업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이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결과가 부부들의 응답성향과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부부들의 행동성향이나 갈등상황에서의 부부반응 관찰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한 연구설계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끝으로, 결혼의 성공과 실패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자원의 유무에 의해 일부분 결정되므로 결혼과정의 여러 지점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대인적 또는 부부관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탄력적인 개인특성을 밝히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며,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훼손하는 남편들의 부정적 갈등 반응을 낮추거나 조절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Conger 등(1999)의 연구에서 부부의 문제해결 기술이 부부갈등을 조절하여 결혼안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자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방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부 간의 애정표현, 친밀의 정도, 결혼유지를 위한 헌신 등 부부관계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결혼생활을 보호하는 부부관계요인을 밝히는 작업도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경신, 이선미 (2001).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10, 31-54.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65-83.
- 윤태호 (2003). 빈곤과 건강. 김창엽(편). 빈곤과 건강.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이동원 (1988). 도시 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 (1997).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연구논집, 16(1), 153-173.
-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 (2000). 경제위기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3.
-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4), 727-745.
- 이선미, 전귀연 (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1.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 성원사.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3), 531-548.
- 장문선, 김영환 (2002).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21(5), 331-347.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혜정 (2002).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9), 17-34.
- 조궁호 (2003).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 비교문화적 고찰.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 229-283.
- 조유리, 김경신 (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

- 도 -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 회지*, 5(2), 1-22.
- 조혜자, 방희정 (1998).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3(1), 1-16.
- 천혜정, 최혜경, 강인 (2006).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부부 갈등 및 갈등대처방법의 차이와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79-202.
-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증개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2), 363-383.
- 최선희, 전명희 (1999). 우리나라 부부갈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239-268.
- 통계청 (2006). <http://knowhow.nso.go.kr/knowhow/kqa/QuestionDetailView.jsp?stat=1&seq=2361>
- 현경자 (2004).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9(2), 225-263.
- 현경자 (2005).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 성별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2), 158-193.
- 현경자 (2007). 기혼자의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 : 결혼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6(2), 137-160.
- Abele, A., & Wojciszke, B. (2007). Agency and comm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51-763.
- Acitelli, L., Rogers, S., & Knee, C. (1999). The role of identity in the link between relationship thinking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5), 591-618.
- Albrecht, S., Bahr, H. T., & Goodman, K. (1983). *Divorce and remarriage : Problems, adaptations, and adjustments*. Westport, CT : Greenwood.
- Ammons, P., & Stinnett, N. (1980). The vital marriage : A closer look. *Family Relations*, 29, 37-42.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olger, N., & Zuckerman, A. (1995). A framework for studying personality in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90-902.
- Booth, A., Johnson, D., & Edwards, J. N.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87-394.
- Bowman, M. L. (1990). Coping efforts and marital satisfaction : Measuring marital coping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463-474.
- Clements, M., Cordova, A., Markman, H., & Laurence, J. (1997). The erosion of marital satisfaction over time and how to prevent it. In R. Sternberg and M. Hojjat(Eds.),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pp.335-355). New York : Guilford Press.
- Conger, R. D., Elder, G. H., Jr, & Lorenz, F. O. et al.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3), 643-656.
- Conger, R. D., & Elder, G. H., Jr.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Conger, R. D., Rueter, M. A., & Elder, G. H., Jr. (1999). Couple resilience to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54-71.
- Conger, R. D., Wallace, L., Sun, Y., Simon, R., McLoyd, V., & Brody, G.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179-193.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Degarmo, D. S., & Forgatch, M. S. (2002). Identity salience as a moderator of psychological and marital distress in stepfather famili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3), 266-284.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 486-495.
- Derogatis, L. R. (1983). SCL-90(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Epstein, N., Bishop, D., Ryan, C., Miller, I., & Keitner, G. (1993). The McMaster model : View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 2nd ed.*, (pp.139-160). New York : Guilford Press.
- Fincham, F. D., & Beach, S. R. (1999). Marital conflict : Implication for working with coupl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47-77.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on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 A : Harvard University Press.
- Heavey, C.,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 Heine, S., Lehman, D., Markus, H.,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 Helgeson, V.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12-428.
- Hraba, J., Lorenz, F., & Pechacova, Z. (2000). Family stress during the Czech transform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520-531.
-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yun, K. J. (1995).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Koreans' mental healt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Impett, E., Beals, K., & Peplau, L. (2003). Testing the investment model of relationship commitment and stability in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couples. In N. J. Pallone(Ed.), *Love, romance, sexual interaction : Research perspectives from current psychology* (pp.163-181). New Brunswick, NJ : Transaction Publishers.
- Karney, B., & Bradbury, T. (1997). Neuroticism, marital interaction,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75-1092.
- Kessler, R. C., Turner, J. B., & House, J. S. (1988).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69-86.
- Kinnunen, U., & Pulkkinen, L. (1998). Linking economic stress to marital quality among Finnish marital couples : Mediator eff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19, 705-724.
- Kinnunen, U., Vermulst, A., Gerris, J., & Makikangas, A. (2003). Work-family conflict and its relations to well-being : The role of personality as a moderating fac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669-1683.
- Kinnunen, U., & Feldt, T. (2004). Economic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 Analyses at the dyadic leve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5), 519-532.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Guilford Press.
- Kurdek, L. A. (1994a).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gay, lesbian, heterosexual nonparent, and heterosexual parent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705-722.
- Kurdek, L. A. (1994b). Areas of conflict for gay, lesbian, and heterosexual couples : What couples argue about influences relationships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924-934.
- Kurdek, L. A.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

- 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53-164.
- Kwon, H. K., Reuter, M. A., Lee, M. S., Koh, S., & Ok, S. W. (2003). Marital relationships following the Korean economic crises : Applying the family stress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2), 316-325.
- Larson, J. (1984). The effect of husband's unemployment on marital and family relations in blue-collar families. *Family Relations*, 33, 503-512.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Leonard, E. L., & Roberts, L. (1998). Marital aggression, quality, and stability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 Findings from The Buffalo newlywed study. In T. N. Bradbury(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pp.43-73).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Y : Free Press.
- Liem, R., & Liem, J. (1988).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87-105.
- Lippes, T. (1999). Mutuality in marriage : The self-esteem connection. A self-in-relation analysi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Margolin, G. F., Fernandez, V., Gorin, L., & Ortiz, S. (1982). The conflict inventory : A measurement of how couples handle marital tension. Paper Presented at The 1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Los Angeles, CA.
-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Pearlin, L.,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Pearlin, L., Menaghan, E., Lieberman, M., & Mullan, J.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Pruchno, R. A., & Resch, N. L. (1989). Mental health of caregiving spouses : Coping as mediator, moderator, or main effect? *Psychology and Aging*, 4(4), 454-463.
- Radloff, L., & Locke, B. (1986).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urvey and the CES-D scale. In M. Weissman, J. Myers, & C. Ross(Eds.), *Community surveys of psychiatric disorders*(pp.177-189). New Brunswick,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 Raykov, T., Tomer, A., & Nesselroade, J. (1991).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 *Psychology and Aging* : Some proposed guidelines. *Psychology and Aging*, 6(4), 499-503.
- Ridley, C. A., Wilhelm, M. S., & Surra, C. A. (2001). Married couples' conflict responses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4), 517-534.
- Sallinen, M., & Kinnunen, U. (2001). Economic stress and family well-being : Mediator effects. *Psykologia*, 36(4), 245-256.
- Schumm, W., L. Paff-Bergen, R. Hatch et al.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South, S., & Lloyd, K. M. (1995). Spousal alternatives and marital diss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21-35.
- Thompson, L., & Walker, A. (1989). Gender in families :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Udry, J. R. (1981). Marital alternatives and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889-897.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166-179.
- Yoder, K., & Hoyt, D. (2005). Family economic pressure and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 Applicat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3), 251-264.

Economic Stress and Marital Relations Among the Low-Income Couple : A Focus on Self-Construal That Promotes Resilient Coping

Kyoung Ja Hyun

Center for Woori Social Work Research

This questionnaire study examined the marital processes linking economic pressure to emotional distress and marital conflict that, in turn, affect marital outcome such as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among 183 low-income couples residing in Seoul. It also investigated whether both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moderate the effect of economic stress on both emotional distress and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s expected, economic str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both emotional distress and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mong husbands and wives, which, in turn, promoted their negative conflict responses. Negative conflict responses among husbands were, as expected, negatively related to the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which, in turn, increased marital instability. As for coping with economic stress, findings provided support only for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that reduced the adverse influence of economic stress on both wives' emotional distress and husband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contributes to marital life among the low-income couple, and may protect marital life among husbands and wives in a different manner.

Keywords: Economic pressure; Economic stress; Emotional distress; Marital conflict; Conflict response; Marital outcome;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stability; Marital instability; Self-construal; Independent self-constru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7월 6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8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8월 25일